

20.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 지내던 산천단(山川壇)³⁸⁾

- ◎ 목사(牧使) 이약동(李約東)이 설단(設壇) 5백년 이어져 ...
- ◎ 노한 한라산신(漢拏山神), 호종단(胡宗旦)을 익사(溺死) 시켜

산천제(山川祭)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고대 탐라국(耽羅國) 시대로 생각이 되지만 그때부터 한라산신(漢拏山神)에게 제사를 지냈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다.

지압(地壓)에 분노한 산신(山神)

그러나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한라산신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기록을 보면 예종(睿宗) 때 (1106~1122) 호종단(胡宗旦)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38) 『한라일보』 제114호 (1989. 09. 02).



| 한라산신제(漢拏山神祭)를 모시던 산천단(山川壇) | 1471년 이약동(李約東) 목사가 이곳에 모단(廟壇)을 마련한 뒤로 5백 여년 동안 매년 중춘추제(仲春秋祭)가 봉행되었다.

호종단(壓勝術)로 이름난 송나라 복주(福州) 사람. 고려에서 벼슬을 하였다.]이 제주도에 들어와 땅의 정기(精氣)를 누르고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때 한라산호국신이 매우 분노하였다. 산신은 매(鷹)로 변하여 호종단이 탄 배를 뒤따라가 배위를 날다가 갑자기 하늬바람을 일으켜 돛대를 부서버렸다. 배는 거센 풍랑에 밀려 마침내 비양도(飛揚島)의 바위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 영이(靈異)함을 포상하여 광양왕(廣壤王)으로 봉하고 식읍을 내리는 한편 해마다 향폐를 내려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이 설에 대하여는 여지승람이나 탐라지 등이 모두 주석을 달고 호종단은 고려에서 벼슬이 기거사인(起居舍人)에 이르러 죽은 사람으로 제주에 와서 익사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탐라지(耽羅志)』, 『탐



|산천단 한라산신제단터와 곰솔|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가 매년 겨울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거행되어 많은 동사상자가 발생하자, 1470년 이약동 목사가 부임한 이후 이곳으로 옮겨 거행됨. 수령이 600년 전후의 곰솔(천연기념물 제160호) 8그루가 의연히 서있다.

라기년(耽羅紀年), 『탁라국서(毛羅國書)』 등 여러 기록이 모두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다.

한편 이외는 따로 『탐라기년』이나 『탁라국서』에는 1250년(고종 40) 10월 왕이 한라산신에게 “제민(濟民)의 호를 가하고 춘추에 제사를 지내게 한 기록이 나온다.

이 두 기록을 보면 모두 한라산신과 관련된 얘기들이지만 연대 차이는 적어도 1백 30년 이상이나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는 광양왕(廣壤王)으로 후자는 제민신(濟民神)으로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광양왕은 한라산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여지승람이나 기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 구분이 된다.



1



2



3



4

1. 산천단 한라산신제단터(제주시 아라동) 2. 한라산신고선비와 묘단내력 지문비
3. 한라산신고선비 4. 목사 이약동 선생 한라산신단기적비(1990년)

이 기록 등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한라산신에 대한 제사는 고려 중엽부터는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라산신의 동생인 광양왕에 대해서는 광양당(현재 광양로터리 북쪽)에서 지냈지만 한라산신에 대하여는 한라산 정상에서 봉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산신제는 매년 2월과 8월에 지내는데 음력 2월에는 아직 눈이 녹기 이전이며 기상이 악화되면 동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한라산신제를 제주시 산천단(제주시 아라1동 375번지)으로 옮겨 거행하도록 한 것은 성종 때의 목사 이약동(李約東)이었다.

그가 제주목사로 도입한 것은 1470년(성종 1) 10월이었다. 그는 산신제로 고통 받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더구나 인명 피해까지 내면서 굳이 정상에서 봉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묘단(廟壇)을 이 산천단으로 옮겼던 것이다.

중춘추(仲春秋)에 제사 지내

그가 이곳으로 제단을 옮긴 데는 산천단은 한라산의 맥(脈)이 뻗어 있고, 제주성과는 중간 위치에 있으며, 당시 이곳에는 소림사(小林寺, 근자에 모교수가 여러 지상에서 제주시 화북동 거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착오로 본다.)가 있었고 과원(果園, 소림원(小林園)도 있어 과일나무와 그 밖의 많은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며 게다가 맑은 샘이 솟는 소림천(小林泉)도 있어 가장 적지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소산 오름 아래 제단을 마련한 뒤로부터 매해 2월 15일과 8월

15일에 목사가 현관이 되어 행제 하였다. 비단 중춘추(仲春秋)에만 지낸 게 아니라 한(旱)·수(水)·풍재(風災)나 전염병 등 큰 재앙이 일어날 때도 이곳에서 제사를 올렸다. 본래 이곳은 소림(小林)이라고 하였지만 이때부터 산천단이라 부르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5백여 년을 한라산신을 받드는 묘단이 되었다.

이약동 목사는 너무나 유명한 청백리(淸白吏)였다. 목사 재임 중에는 도민들이 바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진공(進貢)품을 덜어주었고 수령들이 수렴을 나갈 때마다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많은 민폐도 모두 금지시켰다. 그가 떠날 적에는 여느 목사들과는 달리 모든 관물을 고스란히 관부에 반납하고 심지어는 손에 들고 다니던 말채찍마저 문루에 걸어놓고 빈 몸으로 떠났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였다.

20여 년 전에 필자가 이곳을 답사하였을 때,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1백 60호로 지정(1964. 01. 31) 보호되고 있는 5~6백년생 곶솔이 여남은 그루 있을 뿐 묘단의 흔적은 자취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 뒤로 필자는 여러 차례 이곳을 드나들면서 옛 샘터와 돌담 밑돌로 깔렸던 비석 두 동강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복원(復元) 사업 서둘러 돼

이것이 지금 묘단 터에 서있는 “한라산신고선(漢擎山神古壇)” 비와 “기적유허비(紀蹟遺墟碑)”다. 그 뒤 제주시에서 지금 제단도 마련하여 옛 흔적이나마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은 최근에 이약동 목사의 후손들이 이 현장을

돌아보고 묘단 복원 사업비를 부담할 뜻을 비치면서 옛 사적을 다시 복원할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달(1989. 8)에 발족을 본 한라산 신제단복원(漢拏山神祭壇復元) 및 이약동목사기적비(李約東牧使紀蹟碑)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현평효玄平孝)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5백여 년에 걸쳐 제주도민들의 신앙문화의 본산이었던 이 소중한 유적이 다시 재현되기를 받고 싶다.